

퇴계학연구의 회고와 전망—철학적 영역

琴 章 泰

《목 차》	
I. 문제의 성격	III. 퇴계학연구의 회고
II. 퇴계학의 철학적 연구영역	1. 퇴계학이해의 萌芽(1900—1945)
1. 퇴계의 시대에서 퇴계학의 연구	2. 퇴계학연구의 성장(1946—1971)
2. 퇴계학의 사상적 계승에 관한 연구	3. 퇴계학연구의 발전(1972—1990)
3. 퇴계사상의 현대철학적 이론을 통한 연구	IV. 퇴계학연구의 전망
4. 퇴계의 철학이론을 현대의 동서 철학자의 이론과 비교연구	1. 성찰과 새로운 방향
	2. 새로운 쟁점의 요구와 장래의 전망
	V. 맺는말

I. 문제의 성격

한국사상의 전통 속에서 조선시대의 道學은 기본줄기에 해당하고, 조선시대 道學의 철학영역인 성리학의 정립에서 퇴계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宋代 道學이 조선왕조의 창업(1392)과 더불어 국가의 정통이념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 道學이 철학적으로 한국화한 것은 200년이 지나 퇴계 이황(1501—1570)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조선시대 도학은 퇴계에 이르러 비로소 독자적인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철학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개척하여 심화할 수 있었으며,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새로운 수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퇴계의 사상과 이를 계승한 퇴계학파의 학문으로서 퇴계학은 한국유교사상의 전통속에 파생한 여러 다양한 학파들의 先河를 열었으며, 한국사상의 영혼을 불어넣는 깊은 철학적 세계를 개척하였다. 퇴계의 시대 이후로 韓末・近代에 이르기까지의 3백년 이상을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발전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이후 국권을 상실당하는 역사적 시련을 겪고 전통문화를 파괴당하는 근대화과정의 사상적 단절을 겪으면서, 전통의 道學정신은 역사를 이끌어가던 힘이 쇠잔해지고 말았다. 더구나 한 시대가 서구문화에 매몰되면서 퇴계학은 우리의 관심과 이해로부터 깊은 망각의 늪에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 민족의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미래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 사이에 퇴계학은 혹은 전통사상으로서 혹은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자원으로서 새로운 관심을 조명받게 되고 활발한 연구

가 다시금 일어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오늘의 시절이 지닌 의미는 바로 한동안 진보와 성장의 장애로 배제되었던 전통사상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기반이요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퇴계학의 현대적 부활과 새로운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연구성과에 대한 전체적 조망과, 이에 따른 성찰 및 전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퇴계학의 철학적 연구영역

지금까지 축적된 퇴계학연구의 성과는 철학적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나, 크게 보면 사상전통의 연구로서 철학사적 관심과 철학적 문제의 이론적 연구로서 현대적 관심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퇴계학의 철학적 연구가 이러한 두가지 큰 관심의 병행에 따라 어떠한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퇴계학의 전반적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철학사—사상사적 관심은 한국철학사—한국사상사의 유산으로서 사상사의 연속성과 상호연관 속에서 퇴계학의 철학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한국철학사의 일환으로 퇴계학의 연구는 퇴계자신의 철학사적 해명과 퇴계의 철학사상을 계승하는 퇴계학파의 철학사적 해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퇴계의 시대에서 퇴계철학의 연구

퇴계가 살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퇴계자신의 사상을 철학적 주제와 저술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성과가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퇴계사상의 철학사적 연구에는 그의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술에 대한 문헌고증적 연구를 포함하여, 주요 철학적 개념의 형성 배경과 퇴계의 개념적 특성 및 다른 성리학자들과의 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퇴계의 철학적 저술에 대한 문헌고증적 연구로는 〈心經〉·〈近思錄〉·〈朱子語類〉 등의 문헌이 퇴계철학에 미친 영향과 〈啓蒙傳疑〉·〈朱子書節要〉·〈宋季元明理學通錄〉 등의 저술에서 나타난 퇴계의 철학적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적 이해에서는 朱熹를 비롯한 宋明代 중국성리학자의 개념과 비교연구하면서 그 일치점에 대한 분석과 독창성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또한 퇴계의 철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奇大升을 비롯한 당대 조선의 성리학자들과 이론적 쟁점을 비교연구함으로써 개념의 논리적 엄밀성이 검토된다.

2. 퇴계학의 사상사적 계승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사—사상사 속에서 퇴계학은 풍부한 철학적 토론과 심화과정을 수반하고 있

다. 먼저 퇴계의 성리학적 이론이 그를 계승하는 영남학과 및 그의 성리설과 뚜렷한 차이를 지닌 국내의 기호학파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철학사—사상사의 내용을 형성한다. 또한 퇴계철학은 일본 등 국외에 전파되어 폭넓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실이 활발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퇴계학의 논의는 한국사상사 속에서 道學—성리학의 범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퇴계학은 李瀼·丁若鏞 등의 실학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퇴계자신이 왕양명의 철학을 비판한 것과 연관하여 양명학과 연관된 영향이나 쟁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현대적 관점에서 퇴계학을 고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서 새롭게 음미하거나, 윤리시대의 동서철학 이론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퇴계사상의 현대철학적 이론을 통한 연구

새로운 시대의 철학적 언어와 방법을 통한 퇴계철학의 이해를 위해 해석학, 철학적 인간학, 실존철학, 과정철학, 유물론 등의 서양철학체계로서 재해석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퇴계사상을 특정한 서양의 현대철학에 의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퇴계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주제를 사회·역사·교육·문학·종교·예술 등 현대의 서구적 학문 분야에서 퇴계사상의 형성배경 및 퇴계사상의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4. 퇴계의 철학이론을 현대의 동서철학자의 이론과 비교연구

서양의 현대철학 유파로서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칸트·헤겔·하이데거·하이데그 등 특정한 서양철학자의 철학이론과 삶의 자세를 퇴계의 철학과 생애에 비교하는 연구는 퇴계학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병리로 심각하게 성찰되는 기계화·비인간화의 현상에 대한 처방과 인간회복의 논리로서 해석되는 등 퇴계사상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Ⅲ. 퇴계학연구의 회고

1. 퇴계학이해의 萌芽(1900—1945)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국권침략시기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학문방법이 일반화되면서, 퇴계학의 문제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시기의 퇴계의 사상과 저술에 관한 연구는 한국유학의 대표적 유산으로서 계몽적 소개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韓國儒學史의 通史의 서술 속에서도 퇴계학연구의 萌芽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곧

〈西北學會月報〉・〈開闢〉 등 계몽운동 내지 민족종교운동의 잡지와 〈朝鮮〉(조선총독부발행) 등 日帝의 官學者들에 의해 단편적인 교양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발표되었던 논문들로서 주목할만한 몇편의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¹⁾

‘退溪선생의 學이 行于日本者 久矣’ (〈西北學會月報〉12, 西北學會, 1909)

‘東方理學의 宗祖인 李退溪先生’ (〈開闢〉15, 開闢社, 1921)

‘退溪선생의 宇宙觀과 人生觀’ (〈開闢〉16, 開闢社, 1921)

李丙燾, ‘李退溪傳’ (〈新民〉29, 新民社, 1927)

松田甲, ‘李退溪의 학설을 연수한 薩摩의 大儒 赤崎海門’ (〈朝鮮〉137, 1926)

松田甲, ‘李退溪의 편찬 自省錄과 朱子書節要’ (〈朝鮮〉163, 1928)

松田甲, ‘陶山書院에 藏한 村上玉水の 李退溪書抄’ (〈朝鮮〉174, 1929)

松田甲, ‘李退溪의 學流를 顧하고’ (〈朝鮮〉177-8, 1930)

일제강점기에 주로 발표된 논문은 민족계몽운동의 입장과 日制官學의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고, 퇴계사상의 단순한 소개를 넘어선 것으로서는 퇴계사상이 일본유학에 미친 영향의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사상에 미친 퇴계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민족운동의 입장에서는 민족문화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제기되고, 일제관학의 입장에서는 한일의 유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제 관학자 松田 甲은 퇴계학에 관해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퇴계학의 일본전파와 퇴계저술의 문헌연구 및 퇴계학파에 대한 인식등 다양한 관심을 제기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기에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國學(國故學)운동이 일어나면서, 朝鮮古書刊行會에서 〈退溪集〉(1917)을 간행한 것은 퇴계학의 근대적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국계몽사상가인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1917, 1922刊)은 한국유학사의 최초 통사적인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퇴계학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지연 이후로 한국유학사를 본격적인 사상사의 관심에서 저술한 것은 역사학자 李丙燾의 〈資料韓國儒學史草稿〉(1937, 1959刊)이다. 그는 퇴계학을 ‘학과 및 당파 분열시대의 유학’ 속에서 다루고 있다. 뒤이어 玄相允의 〈朝鮮儒學史〉(1945, 1949刊)가 잇달아 나오면서, 퇴계의 성리설의 기본 입장과 그 쟁점을 한국유학사 속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퇴계사상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기틀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한국유학사의 통사적 이해 속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부각된 것은 퇴계학의 성리학적 쟁점인 四端七情論爭의 문제라 하겠다. 성리학의 논쟁이 퇴계철학의 핵심문제로 강조된 것은 퇴계학의 문제가 철학적 개념논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퇴계철학의 특정한 문제에 지나친 역점을 둠으로써, 퇴계철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관심을 균형있게 제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퇴계학의 연구

1) 퇴계학 연구논문과 저술의 자료는 ‘退溪學研究論著目錄’, 〈退溪學研究〉 제3집(1989,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및 〈退溪學研究論放提要〉(1981, 퇴계학연구원)에 주로 의거하였음.

가 철학에만 촛점이 맞추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性理說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퇴계학의 종합적인 전체상을 발견하는데는 상당히 불충분한 점을 남겨놓고 있다.

2. 퇴계학연구의 성장(1946—1971)

해방이후 서양문물을 급속하게 도입하는 근대화과정은 전통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서구편향적이고 전통파괴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反傳統的 歐美化를 지향하는 근대화과정에서 전통사상의 연구는 추운 그늘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60년대 부터 한국유학사 내지 한국사상사의 대표적 인물로서 퇴계사상의 연구가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 전통사상의 연구에 종사한 학자들로는 朴鍾鴻·劉明鍾·金敬琢·裴宗鎬·尹絲淳·柳正東 등 동양철학의 전문학자들로서 하나의 학문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퇴계철학 내지 퇴계학에 대한 중심문제를 해명하는데 팔목할 업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서는 퇴계학을 주제로 한 석사논문들도 다수 나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연구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朴鍾鴻, ‘우리 師表 李退溪先生’, 〈지방행정 75-77〉, ’59—60.

劉明鍾, ‘退溪의 異學觀과 그 영향’, 〈고병간화갑기념〉, ’60.

朴鍾鴻, ‘李退溪의 聖學十圖’, 〈사상계 136〉, ’64.

金敬琢, ‘退·高의 四七論辯’, 〈아세아연구 18〉, ’65.

蔡茂松, ‘退·栗二家理氣說之內容’, 〈아세아연구〉 ’69.

尹絲淳, ‘退溪의 太極生兩儀觀’, 〈아세아연구 35〉, ’69.

宋 喆, ‘이황自筆校正本 朱子語類의 가치와 그의 학문방법론’ 〈역사학보 47〉 ’70.

李丙燾, 〈李退溪와 그의 學說〉, 한국학연구총서, ’71.

尹絲淳, ‘退溪에 있어서 當爲문제’, 〈새교육 23-2〉, ’71.

尹絲淳, ‘退溪의 心性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41〉, ’71.

劉明鍾, ‘퇴계사상의 현대적 해석’, 〈세대 92〉, ’71.

柳正東, ‘퇴계선생의 格物致知考’, 〈조용욱 고회논총〉, ’71.

丁淳睦, ‘退溪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 〈새교육 23-2〉, ’71.

위의 연구성과를 보면 계몽적인 단계를 넘어서 성리설을 비롯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잡지에 소개된 교양적인 논문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학술 논문집에 수록된 무게있는 논문들이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퇴계학에 관한 연구에 종사 인물들은 당시와 그 다음 세대에서 한국철학분야의 주도적 얼굴들이기도 하다.

특히 ‘退高四七論辯’(김경탁), ‘退溪의 太極生兩儀觀’과 ‘退溪의 心性觀에 관한 연구’(윤사순), ‘退溪의 格物致知考’(유정동), ‘退溪사상의 현대적 해석’(유명종) 등은 퇴계 성리학의 핵심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다. 李丙黨의 〈李退溪와 그의 學說〉은 이 시기에 국내에서 나온 퇴계학연구의 단행본으로 주목된다.

그 밖에도 퇴계철학을 주제로 한 석사논문으로는 鄭鍾復('58), 尹絲淳('64)의 四七理氣論 연구, 張翊翹('65)과 金彰均('70)의 교육사상연구, 金容傑('66)의 敬사상연구, 辛在乙('71)의 Karl Rogers 이론과의 비교 등이 잇달아 나오음으로써, 퇴계학연구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시기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퇴계사상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阿部吉雄, '일본근세초기의 儒學과 朝鮮', 〈人文科學紀要 7-2〉, '55.

阿部吉雄, '林羅山の 儒學과 朝鮮', 〈朝鮮學報 10〉, '56.

今中寬司, '일본근세유학에 미친 李朝儒學의 영향', 〈韓來文化의 後榮〉, '62.

金熙明, '李退溪와 일본의 정신문화' 〈漢陽 3-6〉, '64.

丁淳睦, '李退溪의 교육사상이 근세 일본교육에 미친 영향', 〈師大학보 5〉 '67.

閔太植, '퇴계의 晦菴書節要와 일본의 근대文教에 끼친 영향' 〈중국학보 9〉 '68.

崔岐洪, '퇴계의 仁愛사상과 일본教育勸語', 〈새교육 23-2〉, '71.

이들에 의해 퇴계사상이 일본유학 및 교육에 미친 영향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퇴계학이 한국의 전통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로 전파되었던 퇴계학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일본학자 阿部吉雄의 연구는 퇴계의 일본유학에 미친 영향을 넘어서 한국유학과 일본유학의 전반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고, 丁淳睦은 퇴계사상의 교육사상적 성격과 현대적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과제는 철학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퇴계·율곡의 성리학적 쟁점을 비롯한 비교연구, 〈朱子書節要〉를 비롯한 문헌학적 검토, 교육사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학, 현대화의 모색 등 다양한 학문영역과 방법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3. 퇴계학연구의 발전(1972—1990)

1970년은 退溪의 死後 400周忌를 맞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기획된 논문집으로서 〈退溪學研究〉가 1972년 '퇴계선생 4백주기 기념사업회'에서 간행되면서, '退溪學'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서 퇴계학연구는 종전의 연구성과에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退溪學研究〉(1972)에 수록된 철학분야의 논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朴鍾鴻, '퇴계의 시대적 배경'.

李相殷, '퇴계의 학문과 사상'.

李乙浩, '퇴계선생과 奇高峯'.
 柳正東, '퇴계선생의 敬에 관한 윤리적 고찰'.
 李完裁, '퇴계선생의 학문적 방법'.
 全斗河, '퇴계의 存在論'.
 李東俊, '퇴계 敬사상의 철학적 고찰'.
 尹絲淳, '퇴계의 價値觀'.

〈退溪學研究〉에 실린 10편의 논문관계 속에서 문학과 역사 분야의 각 1편을 제외하고 8편이 철학분야의 논문이라는 사실은 퇴계학에서 철학분야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를 보면 朴鍾鴻은 퇴계철학을 역사적 상황과 학문의 동향에 연관시켜 해명하고 있으며, 李相殷은 '敬義來持'와 '知行並進'의 논리에 기초하여 〈天命圖說〉을 중심으로 퇴계의 학문체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李完裁는 '窮理와 居敬'의 두 기본방법을 중심으로 퇴계의 학문방법(爲學論)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李相殷과 李完裁의 논문은 퇴계철학의 기본체계와 방법을 핵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퇴계학연구의 기초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李乙浩의 退溪·高峯 성리설(四七論)의 비교연구와 柳正東·李東俊에 의한 敬사상의 연구는 퇴계철학의 두 핵심개념을 제기한 것이며, 나아가 全斗河의 存在論과 尹絲淳의 價値觀에 의한 퇴계철학의 연구는 현대철학적 분야에서 퇴계철학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이처럼 〈退溪學研究〉는 철학분야에서 퇴계학연구의 새로운 里程碑를 제시하는 것이요, 이를 계기로 퇴계학 연구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2년에는 退溪學研究院이 창립되고, 그 이듬해부터 季刊으로 〈退溪學報〉가 간행되어 1990년 3월까지 65輯이 발간되면서 퇴계사상에 연관된 논문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독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게 하는 못자리가 되었다.

〈退溪學報〉의 창간호(1973년 10월 발행)에 실린 朴鍾鴻의 '創刊辭'에서는 퇴계학연구의 분발을 요구하는 두가지 요청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연구의 낙후성에 대한 자각이다. 사실상 퇴계학연구에 있어서 우리학계의 관심과 수준이 일본이나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폐한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자신 보다도 오히려 이웃나라에서 더 많이,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이미 훌륭한 업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고맙기에 앞서 등에 땀이 흐르도록 부끄럽기 이룰데 없는 노릇이다. 이래로 가다가는 우리의 퇴계학연구를 일본이나 대만에 가서 해야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만 같다.”

다른 하나는 퇴계학이 현대사회와 세계가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는 데 의미있는 대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학문이라면 서양의 과학기술부터 생각하게 된 오늘날의 세상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소외

와 자멸을 막기 위하여서도 본연의 인간성으로 돌아와 평화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데 인류의 이 난제해결에 있어서 퇴계선생의 爲學정신이 뜻깊은 시사를 제공할 것만은 틀림없다. 이 점에서 퇴계학연구는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만방에 널리 보급시켜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은 퇴계학연구의 당면과제로서 연구수준의 심화와 확산을 추구하고, 동시에 현대적 해석을 통한 한국철학으로서 퇴계학을 세계화하자는 야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곧 당시 한국의 철학계에 잠재된 퇴계학연구의 열정과 사명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도 퇴계학연구에 관심이 확산되어 퇴계학을 연구하기 위한 도서관이 각 대학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1973년 慶北大學에 退溪學研究所가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檀國大('87), 安東大('89)에 잇달아 退溪學研究所가 설립되어, 연구활동과 더불어 학술논문집을 간행하고 있다. 慶北大學의 退溪學研究所는 1989년 12월까지 학술논문집으로 <韓國의 哲學>을 17호까지 발행하여 퇴계학을 비롯한 한국철학의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檀國大學 退溪學研究所는 1989년 11월까지 학술논문집 <退溪學研究> 3집을 간행하면서 퇴계학연구에 집중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安東大學 退溪學研究所도 1989년에 <退溪學> 창간호를 간행하여 퇴계학연구를 중심으로 영남유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퇴계학연구를 위한 전문학술논문집이 여러 종류가 발행되면서 퇴계학연구는 획기적인 성장과 연구수준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들 논문집의 기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밖에도 영남지역에서 퇴계사상에 관한 연구논문이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다. 곧 儒敎文化研究會와 退溪學釜山研究會는 <儒敎文化>를 1983년 창간하여 1988년 6집의 간행에 이르기까지 퇴계학과 유학전반에 걸친 논문들을 실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1973년에 <退溪學研究>를 발행하여 퇴계학분야의 논문들을 수록하였고, 1988년 12월 <退溪學研究> 8집을 간행하기까지 퇴계학연구의 단행본 저술이나 치밀한 연구에 기초한 譯註도 출간해왔다.

<퇴계학보>는 발간초기부터 일본학자의 참여로 퇴계사상이 일본유학에 미친 영향이 발표되었고, 1977년에 시작하여 1990년 13차에 이르기까지 '퇴계학국제학술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면서 일본·대만·중국 및 歐美의 학자들까지 참여하여 퇴계사상연구의 국제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퇴계학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시기에는 퇴계의 철학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저술과 박사학위논문들이 상당수 출간됨으로써 퇴계학연구의 중요한 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그 중요한 저술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李相殷, <퇴계의 생애와 학문>, '73.

柳正東, <퇴계의 생애와 사상>, '74.

- 全斗河, 〈퇴계사상연구—퇴계의 관점에서 본 헤겔철학〉, '74.
 丁淳睦, 〈퇴계 敎學사상연구—인간교육학적 고찰〉, '78.
 韓明洙, 〈퇴계의 敎學사상〉, '79.
 윤사순, 〈퇴계철학의 연구〉, '80.
 蔡茂松, 〈退栗성리학의 비교연구—退栗의 사상입장을 중심으로〉, '82.
 李鍾述, 〈退溪栗谷철학의 비교연구, 1〉, '85.
 金秉圭, 〈退溪思想和 正義〉, '86.
 全斗河, 〈李退溪哲學—그 심층연구 및 이론〉, '87.
 劉明鍾, 〈退溪와 栗谷의 철학〉, '87.
 尹天根, 〈退溪哲學을 어떻게 볼 것인가〉, '87.
 權五鳳,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89.

국내에서 퇴계철학의 단행본저술과 퇴계의 철학적 저술에 대한 譯註가 갈수록 많이 출간되는 것과 병행하여, 일본·중국·미국 등의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도 퇴계철학연구의 단행본저술이 간행되고 있다. 그 저술목록을 다음에 제시한다.

- 高橋 進, 〈李退溪와 敬의 철학〉, '85. 일본.
 友枝龍太郎, 〈李退溪—그의 生涯와 思想〉, '85. 일본.
 Michael C. Kalton,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譯註), '88. 미국.
 張立文, 〈退溪書節要〉(譯註), '89. 중국.

이 시기에는 퇴계의 철학사상에 관한 전분야라 할만큼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量的으로 한국사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한다면 과포화상태라 할만큼 방대한 분량의 업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性理學의 분야에 있어서는 동일한 주제로 반복된 논문이 발표되면서 質的 깊이에서도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Ⅳ. 퇴계학연구의 전망

1. 성찰과 새로운 방향

‘퇴계학연구논저목록’(<퇴계학연구> 제 3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9)은 47쪽에 걸친 퇴계학연구의 방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 절반을 퇴계의 철학사상에 관한 업적이라 보더라도(사실은 더 많은 비중이 철학사상의 연구이다) 국내에서 한 인물과 한 학파의 철학사상을 연구한 업적으로서는 유례없이 많은 분량이다. 그러나 이 양적 방대성이 퇴계학연구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장해 주고, 확고한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첫째, 이 논문들의 절대다수는 퇴계자신의 철학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퇴계학의 사상사적 전개와 변천에 관한 폭넓은 인식이 결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계의 위치가 퇴계학의 원천이요 기초인 것은 사실이지만,

퇴계학은 한 인물의 철학으로 머무르기 어려운 4백년이상 계승되고 확산되어 온 철학전통이다. 마치 강물의 원천이 가장 순수하고 의미깊은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역사적 현실은 엄청난 이질성을 포용하면서 전승되어온 전통을 떠나서 온전한 강을 인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퇴계의 철학이 퇴계학과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그 해석을 통하여 퇴계철학—퇴계학은 풍성해진 것이 사실이다. 퇴계철학의 해석에는心개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통적 해석인 心合理氣說과 李震相의 퇴계해석인 心則理說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이에 따른 많은 논쟁이 제시되어 왔었다. 더구나 퇴계의 心性理氣說에 반대하는 栗谷학파의 무수한 논의와 절충적인 입장에 있는 제3의 견해 사이에는 무수한 다양성이 제기되어 왔다. 단지 朱子 및 奇高峯과 李栗谷의 성리설에 대한 비교연구에만 머물 수 없는 무수한 질문들이 한국철학사에 속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퇴계철학은 이들의 다양한 이론들과 대비되고, 그 변화과정의 논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매우 한정된 범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위험이 가로놓여 있다.

최근에 朴在聲 및 19세기(渡部學, '77), 星湖(李楠永, '78), 羅整菴과 王陽明(友枝龍太郎, '81), 稻葉默齋(山崎道夫, '82), 뉴이(崔廉烈, '83), 칸트(高橋進, '88), 明代朱子學(步近智, '88), 李延平(佐藤仁, '89) 등과 퇴계학의 비교연구는 퇴계학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퇴계철학의 이해에는 아직도 理氣·四七·敬 등 몇가지 한정된 개념을 제외하면 다른 많은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 자신의 철학체제도 무수한 개념들의 조직을 통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더구나 퇴계학파의 전개과정에는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고, 다양한 이론들이 도입되고 창출되었던 사실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義와 理, 道와 德, 天과 人, 知와 行 등 많은 유교사상의 고전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요, 死生·欲望·意志·自由·自然·歷史·時間 등 오늘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더욱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퇴계철학에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확대가 앞으로 퇴계철학의 연구과정에서 활발하게 제기됨으로써 퇴계학의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퇴계철학이 우리시대에도 의미있는 철학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무한한 확대 가능성을 퇴계 자신과 그의 학파의 철학사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敬을 지향하는 義理學'(丁淳睦, '75), 異端批判(劉明鍾, '77), 理想主意(尹絲淳, '78), 憂患意識(安炳周, '80), 斥佛論(宋昌漢, '83), 天(尹聖範, '80), 종교성(朴性배, '84; 尹絲淳, '85)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퇴계학의 장래에 밝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퇴계철학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퇴계철학의

연구분야는 성리학·수양론·교육사상 등을 중심으로 천착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계철학의 연구분야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계철학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는 우선 전통적인 학문영역으로서 四書를 비롯하여 易·詩·書·春秋 등 經學의 연구가 크게 확장시킬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經學은 사실상 유학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리학에서도 필수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퇴계자신과 퇴계학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禮學은 거의 미개척 분야가 되고 있다. 최근에 經學의 분야에서 퇴계의 經書註解를 다룬 宋競燮('80)의 논문과 禮學분야로서 周何('78), 崔根德('89), 權五鳳('89)의 논문은 이 분야에 개척적인 논문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퇴계의 철학사상은 이론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므로 퇴계학의 經世論 영역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철학적 조명이 필요하다. 퇴계의 文學에 대해서도 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詩를 통한 철학적 인식의 함축적 표현은 철학적 이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朴忠錫('78), 全樂熙('80)에 의한 퇴계 정치사상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현대적 서구철학의 분야도 퇴계학 연구에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석학·분석철학 등의 방법과 종교철학·예술철학의 영역들이 퇴계철학연구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양철학의 기초 위에서 퇴계철학의 연구를 폭넓게 유도하여 연구인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퇴계학의 다양한 영역과 철학적 이론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연구의 편중현상은 앞으로 퇴계학연구의 방향에 필수적으로 보완·확장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辯證論理(劉明鍾, '87), 情感哲學(蒙培元, '88), 直覺觀(徐遠和, '89), 唯物論(丁淳睦, '89), 人間學(李東俊, '78), 心身觀(丸山敏秋, '86) 등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퇴계학연구의 좋은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錢穆('76), 李完裁('77), 柳承國('77), 全炳梓('78) 등에 의해 현대적 인식과 의의에 관한 구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 새로운 쟁점의 요구와 장래의 전망

퇴계학—퇴계철학의 연구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 안에 성취하였던 놀라운 향상과 방대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단계로 발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은 당연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퇴계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부터의 시기가 바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의 탐색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퇴계철학의 향상을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세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 비판적 인식이 요구된다. 퇴계학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히 퇴계철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비판적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사상의 연구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문제점은 한 인물의 철학사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先賢을 존중한다는 태두리 안에서만 논의되어 개인승배의 분위기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퇴계학의 연구에서 이러한 개인승배에 사로잡히면, 결국 퇴계사상의 연구가 발전·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비판이 열려 있는 사상가의 경우에만 더욱 확고한 진실성에 대한 입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철학사 속에서 퇴계철학에 대한 비판이론도 활발한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 때, 이 비판에 대한 퇴계철학의 대응논리에 대한 연구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현대의 서양철학 이론에 의한 퇴계철학의 이론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요구된다.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그 한계의 극복논리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퇴계철학의 이해에서 서양철학의 도입이 단순하게 유사성·일치성을 확인함으로써 퇴계철학의 타월성을 입증하는데 머물기보다, 마치 풀무잔의 망치처럼 쇠를 더욱 단단하게 불리는데 쓰여지게 할 필요가 있다.

퇴계철학은 16세기에 창조되어 옹고된 철학이나 교조적 철학이 아니요, 조선시대에서도 더욱 세련된 논리로 새롭게 해석해 왔었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서도 재해석되고 성장하는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 퇴계철학은 한국철학의 유산이면서 세계철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둘째, 퇴계철학은 현실과의 밀착이 요구된다. 원래의 퇴계철학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현실과 괴리될 수 없는 철학적 자세를 지녔다. 그러나 역사적 변화에 자기변화를 소홀히 하고 전통형식의 고수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틈에 비현실적인 관념론적 패대만 남게 된다. 우리 시대에서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킨 퇴계는 단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추억 때문이 아니라, 우리시대에서 우리자신의 삶과 직접 연결시켜지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현대적 관점에서 퇴계사상의 연구는 전통사상의 피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사회의 현실 속에 정착시킬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의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하기 위한 투쟁, 도덕성의 쇠퇴에 대한 우려, 물질적 욕망의 팽배, 노동자와 기업의 대립된 이해관계, 분단된 민족의 장래, 국제사회 속에서 대처방법 등 우리시대에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퇴계철학의 대답과 논리가 제시되고, 활발하게 토론될 필요가 있다.

세째, 퇴계철학은 대중적 확산이 요구된다. 퇴계와 퇴계학파의 전통적 유산은 한문문헌으로 남아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철학적 요구에 심각한 제약을 낳고 있다. 퇴계의 시대는 한문이 당시의 통용문자이었으므로, 모든 지식인이 함께 토론할 수 있고, 그 토론

속에서 퇴계철학도 연마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는 소수의 한문해 독자만이 일상언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특수한 전문한자용어를 되풀이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으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것이 또하나의 넘기 어려운 난관이다.

교육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음미하며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언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의 현실문제에 연관시켜 토론함으로써 퇴계철학이 우리시대에 다시 한국철학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퇴계의 저술이 부분적으로 국역되었지만, 퇴계학회에서 추진하는 <퇴계전서>의 완역된 국역본이 금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고 있는 사실은 퇴계학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퇴계학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철학—동양철학의 전문학자가 밖으로 뻗어나가, 서양철학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도 확산되고, 일반 교양인의 독서와 사색자료가 될 때가 아마 퇴계학의 현대화요 대중화요 한국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본다.

V. 맺 는 말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시작된 퇴계학은 지난 백년사이에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연구성과를 돌아보면서 연구자 자신도 의욕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할 것이요, 학계 안팎에서 볼 때도 아직 미비한 분야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연구의 축적과 시간의 경과를 거쳐 넉넉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퇴계학의 장래는 매우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방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의 반성적 검토가 너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퇴계학연구가 장래에 새로운 수준으로 비약하는데 결정적 제약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사에서 퇴계의 성리학적 입장은 이론적 쟁점의 핵심에 놓여 있었고, 그 논쟁들을 통하여 퇴계학이 성장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퇴계철학연구의 전개에서 퇴계의 이해를 위한 관점과 그 이론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는 것이 퇴계철학연구에 활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퇴계는 四端七情說의 논쟁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매우 창조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퇴계학과 안에서도 논쟁의 쟁점을 찾았을 때 새로운 수준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었다. 우리시대는 많은 모순과 문제들을 안고 있는 만큼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발견된 쟁점을 통하여 퇴계철학이 우리시대에 다시 불붙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1990년을 계기로 퇴계학회는 <퇴계전서>의 국역사업과 <퇴계학보>를 통한 기존연구업

적의 재정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면서 장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기존연구성과는 장래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퇴계학이 지닌 기본 성격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열린 철학이라야 할 것이다. 역사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통시켜 주는 철학이라야 한다. 중국철학의 모방도 아니요 한국철학의 유물도 아니요, 모든 철학과 숨이 통하고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세계의 철학 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또한 퇴계철학은 한국의 철학적 멋과 향기를 지닌 철학으로서 그 뿌리와 젖줄을 간직하는 철학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본다.